

2024 01
제228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02 좋은글, 좋은 시

03 신년사

04 대덕구청장 인터뷰

06 구정소식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8 열린의정

10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11 걸어서 대덕속으로

12 대덕톡톡

계족산성 해맞이

박영호(시인, 문학박사, 대덕문학회 회장)

치열했던 역사의 경계에서
서기(瑞氣)를 거느리고
금적(金赤)의 첫 태양이 솟아오르면
가슴 크게 펴 맞아 안고
상서로운 기운을 심장에 담으며
손나팔 만들어 외치는 다짐
“건강하자”
“열심히 살자”
“행복하자”

그대님들도
건강하세요
열심히 삽시다
행복하세요.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1월 5일(제 228호)



신년사



2024년 1월
대덕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과 성취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덕구도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대 융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8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에는 청사 신축 착공,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계족산공원 명소화 본격 추진 등 변화하는 대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대동 물산업 밸리, 리틀돔야구장 조성 등 대덕구 성장·발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호재(好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대덕구 공직자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물망초심(勿忘初心)’으로 선정했습니다. 처음에 품고 다짐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 마련으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2024년 구민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더 크게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

勿 忘 初 心

말 물

잊을 망

처음 초

마음 심

처음에 품고 다짐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만나다



“대덕의 대변화를 이끌 핵심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민선8기 대덕구에서 1년 6개월간 대덕 구정을 이끌어온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그간의 소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 오고 있는 최 대덕구청장을 만나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1년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구청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는 어떠신지요?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지역 핵심 현안 및 총 45개 공약사업 중심으로 구정 운영에 매진한 결과 속속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가속할 것입니다.

Q 지난해 주요 성과를 소개하신다면?

분야별 대표적 성과를 소개한다면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개관,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 등 ‘주요 생활인프라 확충’입니다.

또, ‘문화 분야’에서는 △2023 대덕물빛축제 성공적 개최 △우리구 명소 DB 구축사업 등이 이뤄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체험 청년인턴 채용(19개 사업·76명) △대덕뱅크 확대 운영(48억원·340개 업체 신용보증서 발급)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밖에 △대전시 최초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실시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1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등 각종 수상과 함께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6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203억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함께 노력해 준 대덕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과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 중 대덕구 대표축제 발굴·육성 등 총 8개 사업은 이행 완료 후 계속 시행 중이며, 나머지 37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사업인 새여울물길30리 프로젝트는 1단계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4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대전시 공약사업이기도 한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으로 장동문화공원 조성이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대전산단 대개조사업의 일환인 ‘스마트그린혁신산단’조성은 지난해 2월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축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4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 ‘생활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본격화 △리틀돔 야구장 건립 추진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구축 △대전산단 대개조사업·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대덕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장동~이현 간 도로 개설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경부 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원활한 추진 등으로 살고 싶은 대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호연재 문학관 설립 추진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 본격화 △길치공원 명품 공원화 사업 추진 △재난·재해 대비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강화 △경로당 3곳 신축 및 노후 경로당 2곳 리모델링 추진 △신탄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북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Q 새해를 맞는 각오와 구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대덕구가 융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8기 대덕구가 반환점을 도는 만큼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웅비(雄飛)하는 대덕의 미래를 위해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웃음,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대덕구, 올해 10대 이슈 선정… 1위에 ‘2023년 대덕 물빛축제’ 올라 구민 6000여 명 설문 참여… 2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등

대덕구는 올해 구민들이 뽑은 10대 이슈를 선정, ‘2023년 대덕물빛축제’가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대덕구 10대 이슈는 2023년 11월 24일~12월 3일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는 주요 이슈 18개 중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60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하고 총 2만 6568표가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줬다.

‘2023년 대덕구 이슈 10’ 중 1위는 대덕구의 대표 축제인 ‘2023 대덕물빛축제(39%)’가 차지했다.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청권 최초로 400여 대의 드론 쇼를 연출해 6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덕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이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위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36%)’이 선정됐다. 이어 ‘신탄진 휴게소 내 고속·시외버스 정류소 신설(33%)’이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4위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개관(28%) △5위 경부고속도로 회덕 나들목(IC) 건설사업 착공(28%) △6위 대전 ‘(가칭)리틀돔 야구장’ 대덕구 유치(28%) △7위 대덕구 노인·의료 돌봄통합지원(26%) △8위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6%) △9위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 송촌동 신설(25%) △10위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25%) 등이 선정돼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민 납세 편의 확대” 대전 대덕구,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 개소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 위치… 납세자 권익 향상 기대

대전 대덕구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 3월 대전지방국세청 내 법동민원실이 폐쇄되면서 대덕구민들은 국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구민의 납세 편의 및 권리증진을 위해 법동민원실 재설치, 세무서 신설 건의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북대전세무서와 송촌동행정복지센터에 대덕민원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덕민원봉사실은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민원 증명 발급과 △사업자등록(신규·변경·휴폐업) 관련 업무 처리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민원봉사실(☎042-624-8233) 또는 대덕구청 세정과(☎042-608-662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대덕구, ‘구청 홍보 앞장’ 대덕구민 기자단 성과보고회 개최

구청 소식·대덕 맛집 등 콘텐츠 제작 공식 블로그 방문자 증가 등 성과 ‘눈길’

대덕구가 청년벤처에서 ‘2023년 대덕구민 기자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올해 구청 홍보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덕구민 기자단은 올 한 해 대덕구 대표축제인 물빛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와 구청 소식, 관광명소, 맛집 등을 직접 취재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해왔다.

대덕구는 대덕구민 기자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메타버스 등 6개 SNS 채널을 모두 운영하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구독자 및 방문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새로 개관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홍보를 위해 최근 유행하는 ‘슬릭백 챌린지’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으며, 대전시 최초로 시행한 ‘반려견 순찰대’ 홍보 영상을 인기 그룹 샤이니가 SNS 계정에 공유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엄마 손맛이 생각나는 백반집 '정이가(情利家) 식당'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77번길 20(오정동 51-6) / 042-626-4888
- 백반 8000원 / 청국장 8000원
육개장·갈비탕 9000원 /
동태찌개·김치찌개·돼지주물럭 9000원 (2인 이상)
- 영업시간: 09:00~22: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정기휴무일: 매주 일요일



르게 차려진다.

박 대표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출장 요리로 오랜 기간 활동한 것은 물론 15년간 고기집을 운영한 외식업 베테랑이다.

박금덕 대표는 “오랜 기간 장사를 하다 보니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엄마표 밥상이 그렇지요. 손님들에게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 같은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음식업계에서 손맛도 좋기로 유명한 박금덕 대표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무한한 대덕 사랑이다. 수십 년간 오직 대덕에 뿌리



를 두고 살아온 그녀는 방위협의회, 여성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자생단체 임원 및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삼동장학회장을 6년간 역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꿈나무장학회에도 꾸준히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등 기부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금덕 대표는 “정이가식당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다. 이웃과 사랑, 음식, 정을 나누며 모두의 행복을 다져가는 공간입니다”라며 “작은 돌이 모여 큰 바위가 되듯이 서로 돕고 베푸는 행복한 대덕을 만드는 데 미약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과 정성을 담다 '오정동 한발삼계탕'

- 대전 대덕구 대전로1019번길 36(오정동 486-8) / 042-636-3688
- 능이버섯오리탕 1만3000원 / 왕갈비탕 1만3000원
삼계탕 1만3000원 / 닭개장 7000원
얼큰닭칼국수 7000원
- 영업시간: 09:00~21: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정기휴무일: 매주 일요일



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손님들에게 '맛있다'

라는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 닭은 시골 농장에서 매일 새벽 신선육을 공급받고 있으며, 국산 대추와 인삼, 찹쌀, 그리고 밀반찬에 들어가는 재료도 모두 국산만 사용한다. 임향희 대표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음식점 인수)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손님들을 보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건강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것이 곧 맛의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임 대표의 하루는 새벽기도회 참석부터 시작된다. 이어 새벽 5시 반 경이면 어



김없이 그녀의 발길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으로 향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신선한 식재료를 한가득 차에 싣고 식당에 도착하면 어느덧 아침 7시가 훌쩍 지나버린다.

이후 오후 3시부터 5시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 삼계탕의 맛을 결정짓는 육수 내기부터 고기손질, 겉절이 담그기 등 전부 임 대표의 손을 거친다. 주문과 서빙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손님들이 아시고 반찬 등도 직접 가져다 드시는 것은 물론 식비 카드 결제도 직접 하시고 가신다. 가족처럼 생각하니 그런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닐까요?”라며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모시며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몸을 한껏 움츠리는 추운 겨울, 진한 인삼 국물에 오랜 시간 푹 끓여낸 삼계탕 한 그릇으로 추위를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오정동 대덕구청 인근에 있는 한발삼계탕(대표 임향희)은 삼계탕, 능이버섯오리탕, 갈비탕 등 따뜻한 맛을 기본으로 한 보양식 전문 음식점이다. 여기에 걸쭉한 닭 육수로 얼큰하게 끓여낸 닭개장과 얼큰닭칼국수는 숙취로 쓰린 속을 달래기에 제격이다.

한발삼계탕 임향희 대표는 대학 기숙사 조리사 출신이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그녀는 현재의 한발삼계탕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8년 전 아주 우연한 계기에 덜컥 한발삼계탕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임 대표는 성공식당의 기본은 무조건 '맛'이라고 단언했다. 자신



대덕구의회

‘미래 대덕구’ 향해 머리 맞대

구정질문 열고 주요 현안 추진 계획 집중 질의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12월 5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구상과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주민 불편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의원별 구정질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박효서 의원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지 않고 고속버스터미널·정류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 공약사항 이기도 한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소 설치와 장동-이현 도로 신설 사업은 지역 업계 반발과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들 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조대웅 의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제도’가 있는데, 지역에선 대상자(연 100시간 이상 활동)의 10% 정도만 발급 받았다”면서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발급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 가치 인정으로 지역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준규 의원

지역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약은 17만 구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구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믿음을 지역 발전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2년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의 임기 동안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가 협력해 줄 사안은 무엇인가”라고 주요 공약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물은 뒤, 사업 집행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전석광 의원

혁신도시인 연축지구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연축 지구는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이전 대상 공공기관 미확정에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고문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국토균형 발전은 시대 과제이고, 지방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축지구의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기홍 의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선 경상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 구조 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미 사업비가 기존 1200억 원에서 1750억 원 45%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이 비단 대덕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덕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양영자 의원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법적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지만,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따른 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접수된 관련 민원이 1200여 건에 달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에도 악취 저감 정도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연 의원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대전 5개 구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감소 인원 약 81%가 대덕구와 동·중구 등 구도심에 쏠려 있다”면서 “대덕구는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데다, 구도심권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 등의 핑계로 외면할 게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12월 16일 덕암동 일대에서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 연탄봉사'를 진행했다.

신년사

대덕구민의 자부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현장중심의 의회, 실천하는 의회'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청룡)'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로운 바람과 다짐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지난해 성공과 아쉬움 속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모든 의원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오직 대덕구민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가장 낮은 자세로 많은 구민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초의회 소임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民意)를 살피고, 이를 구정을 넘어 시정과 국정에 담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정파성을 초월하면서 손을 맞잡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올 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 따른 유감과 인근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여야 의원 모두 합심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2년 차를 맞아 권한을 대폭 늘린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선 '반쪽짜리 독립'이란 자조 섞인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기구·정원 권한을 집행부가 지니면서 의회 차원의 인사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의회'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대전 기초의회 최초 주민 발안 조례를 만장일치 원안 가결시키면서 구민 요구에 화답하고 책임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대전 기초의회 최초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전문강사를 통한 스피치교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등 의회 역량과 품격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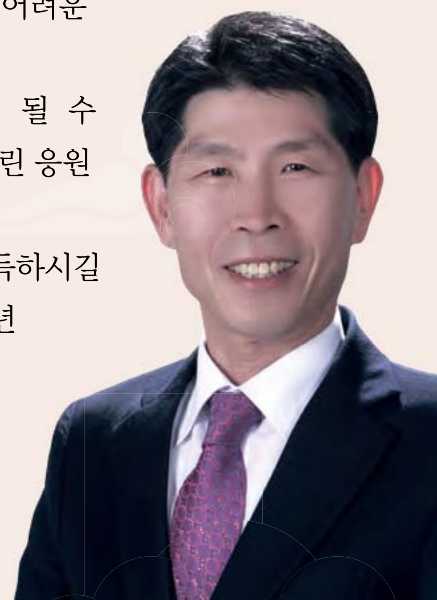
이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당하되 겸손하겠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통치 이념이기도 한 '이민위본(利民爲本·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뜻을 기려 2024년 갑진년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오직 구민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정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덕구민을 위해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가 대덕구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갑진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대덕구의회 의장 김 홍 태

대덕구의회, 2024년 신년화두 '이민위본(利民爲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란 뜻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오직 구민을 이롭게 하는데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반영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

전국적 안보운동단체... 1954년 6월 출범·2024년 70주년 맞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취약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 위한 꾸준한 봉사·기부도 이어가
올해 '이념 갈등 방지 교육' 첫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 적극 구현"



▲ 2023. 12. 6 소식지 인터뷰

2022년 2월부터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대·이념·젠더·정당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갈등'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사회 전반이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우리는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6·25라는 원하지 않은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73년이 지난 현재도 남북한의 대치 및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등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에 '갈등 해소'는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대덕구지회(지회장 전원식, 이하 대덕구지회)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 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았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국민운동단체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 6월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범해 지난 1989년 4월 관련 법령 제정과 함께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현재 약 3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덕구지회는 12개 동별로 각각 '동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 등 매우 촘촘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한국

자유총연맹 본부 차원의 사업은 물론 △취약계층 돕기 △꽃길 가꾸기 △거리 질서 캠페인 등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와 기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원식 지회장은 2010년 자유총연맹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13년간 깊은 사명감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 온것은 물론 지난 2020년 9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 넘게 솔선수범의 마음과 자세로 대덕구지회를 이끌고 있다.

전 지회장은 "제가 지회장으로 취임할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는 봉사의 손길을 펼쳐주신 대덕구지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금강변 환경정화



▲ 6·25음식체험 안보사진전

'코로나 엔데믹'시대를 맞은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는 그간 잔뜩 움크렸던 기지개를 켜듯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광복절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견학(태화강 돌굴피아, 장사 상륙작전 기념관 등 총 5회 200여명의 주민 참석) △금강 환경정화 활동 △농촌 일손 돕기 △자유 예술단 위문 공연(보훈병원 요양원 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여성회로 구성된 포순이 봉사단의 △북한이탈주민 및 취약계층 돕기 김장김치 나눔행사 △저학년 어린이 대상 하꽃길 교통 안내 지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물론 △여성회 주관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도서관 등도 운영했다. 이밖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생활용품 후원 및 말벗 봉사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예교실 등도 진행됐다.

전원식 지회장은 "자유총연맹의 본질과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에 있습니다"라며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국민에게 잘 홍보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념 갈등 방지 △종교 갈등 방지 교육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전원식 지회장 역시 우리나라의 지역·이념·정당 등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덕구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후 단계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전원식 지회장은 "행복과 번영은 좌·우가 아닌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양극단에서 첨예한 이념 대립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역사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함께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이제 행복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 쌍청당(雙淸堂)

대전 대덕구 쌍청당로 17(중리동)에 위치한 쌍청당은 조선 초 부사정을 지낸 쌍청당 송유(宋愉 1389~1446)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내려와 살다가 1432년(세종 14년)에 지은 별당(別堂)이다. 청풍과 명월의 기상을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민간에 단청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는데도 건물에 단청을 한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충청지역에 남아 있는 이와 비슷한 별당 건축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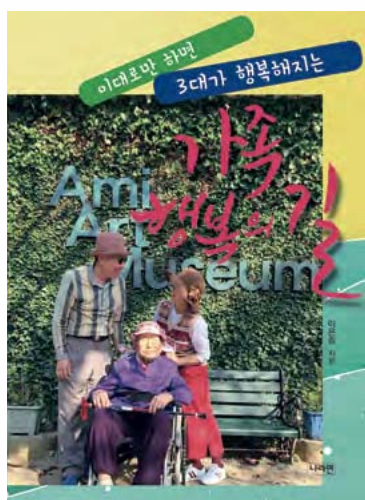
건물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왼쪽 1칸은 온돌방, 오른쪽 2칸은 대청마루로 꾸며져 있으며, 홀처마 팔작지붕 집 구조다. 1989년 3월18일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목상동 이은종씨, ‘이대로만 하면 3대가 행복해지는 가족 행복의 길’ 출간

목상 3통장으로 봉사... 청소년과 가정 문제 다룬 저서 발간



**이대로만 하면 3대가
행복해지는 가족 행복의 길**
/ 이은종

대전 대덕구 목상동 3통장을 맡고 있는 이은종(66)씨가 청소년과 가정 문제를 다룬 책을 펴내 시선을 끈다.

이은종 통장이 지난해 11월 말 출간한 ‘이대로만 하면 3대가 행복해지는 가족 행복의 길 (나라연 290쪽)’이다. 20여 년간 육군 지휘관 및 참모로 근무한 이 통장은 전역 후 (사)대전 충남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되는 가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21C언어학과 심리학이 만나 NLP(Neuro Linguistic Programing)가 태동했으나 심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근원 치료를 위해 불교(교리+사념처법)를 연결시켜 21C(NLP+불교) 융합 심리치료 도구를 제안했다.

마음을 점차 길들이고 법다운 의식으로 조절하는 불교를 토대로 NLP적 치료를 같이 접목한 이 융합 심리치료를 다양한 가족 행복 코칭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이은종 통장은 “미약하나마 저의 작은 뜻이 독자들에게 전달돼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안내

- 대 상 : 관내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
- 내 용 : 대문, 담장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
- 기 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준 : 유형별 지원한도액(설치비용 90% 범위 내 지원)

구분	담장 철거(개조)		대문 철거(개조)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개조)		비고
	직각형 (2.5m X 5.0m)	평행형 (2.5m X 6.0m)	직각형 (2.5m X 5.0m)	평행형 (2.5m X 6.0m)	직각형 (3.0m X 11.0m)	평행형 (3.0m X 11.0m)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 ※ 추가 주차면수 마다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최대 추가 2면까지)
- ※ 주차장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사업 설치 후 5년간 용도변경 및 폐쇄 불가능)

문의 :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 ☎608-5295

온기나눔
하나되는
대한민국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4.5% 공제 받으세요

일 시 2024. 1. 16. ~ 2024. 1. 31.

대 상 자동차원부상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대덕구인 모든 대상

- 내 용
- 선납 후양도 시미경과 기간 세액 환급
 - 소유권 이전 등록 시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일괄계산 환급
 - 폐차·말소 시 폐차·말소일 이후의 세액을 일괄계산 환급

•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 가능

신고납부시기	1.16.~1.31.	3.16.~3.31.	6.16.~6.30.	9.16.~9.30.
공 제 액	연세액의 4.5%	연세액의 3.7%	연세액의 2.7%	연세액의 1.25%

문의처 608-6248

식중독 주의 정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01 노로바이러스란?

● 증상

감염 후 24~48시간 내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남

●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어패류(굴 등)와 지하수.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및 과일류 등

● 예방법

- ①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기
- ② 음식은 끓이거나 잘 익혀 먹기. 특히,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고,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하기
- ③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④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임산·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임산부 등록,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신청하세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신청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모바일 임산부·
영유아 수첩



임신, 육아 정보
(예방접종, 건강검진)



QR코드를 찍어보세요!



ANDROID APP ON
Google play
플레이스토어



Download on the
App Store
앱스토어

문의전화 ☎042-608-5483, 5408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4단계 동파 예방에 따라 동파를 예방하세요!

관심단계

일 최저기온 -5℃ 이상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언트 등 보온재 채우기

주의단계

일 최저기온 -5℃~-10℃ 이상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경계단계

일 최저기온 -10℃~-15℃



정기간 집을 비울 때는 옥조의
수돗물을 싹저름 가늘게
흐르도록 해주기

심각단계

일 최저기온 -15℃ 미만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옥조에 수돗물을
싹저름 가늘게 흐르도록 해주기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D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